

# 시로 복원된 비틀즈... 창작의 확장인가, 도 넘은 기술인가

비틀즈 '나우 앤 덴', 그래미 수상 존 레논 데모 테이프, AI로 정밀 복원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의 본격화 고인 음원 활용, 윤리·법적 과제 부각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원된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Now and Then)'이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AI 기술이 음악 제작 방식과 창작 개념을 변화시키면서 AI가 만든 음악을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인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비틀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타운 아레나에서 열린 제67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록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며 8번째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AI 기반 음원이 그래미 후보에 오른 최초의 사례로, 그린데이, 펄 잼, 블랙 키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폴 매카트니 "합성 아닌 기존 녹음 정리한 것" 강조

그래미 측은 후보 발표 당시 "나우 앤 덴"은 45년 만에 완성된 곡"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존 레논



시로 환생한 존 레논이 비틀즈 멤버들과 '나우 앤 덴'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

/더 비틀즈 공식 유튜브 계정의 '나우앤덴' 뮤직비디오 화면 갈무리

은 1970년대 후반 이 곡의 데모를 녹음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를 위해 음악을 완성해 세상에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나우 앤 덴은 1970년대 말 존 레논이 뉴욕 자택에서 녹음한 미완성 데모 테이프를 AI 기술로 복원해 완성한 곡이다. AI가 레논의 보컬을 분리하고 잡음을 제거해 선명한 음질로 복원한 후,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연주를 추가해 지난해 11월 공식 발매되었다.

폴 매카트니는 "이 곡은 인위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녹음을 정리한 것"이라며 AI 기술이 창작의 본질을 대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인위적이거나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모두가 진짜이고 우리 모두가 그 위에서 연주한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진행해 온 기존 녹음을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틀즈는 1990년대에도 존 레논의 데모를 복원하려 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레논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없어 무산됐다.

이후 비틀즈 다큐멘터리 '비틀즈: 깃백' 제작자들이 머신 러닝(ML) 기반의 새로운 오디오 분리 기술을 적용하면서 제대로 녹음되지 않은 데모에서도 레논의 목소리를 추출할 수 있게 됐다.

◆AI 음악 창작,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확산하면서 창작과 복원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AI가 만든 음악을 기존 저작권 체계로 보호할 수 있는지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AI가 생성한 음악은 법적으로 명확한 보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

태다. AI가 학습한 원본 음원과 생성된 결과물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두고 각국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AI 창작물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AI 음악의 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많지 않은 상황이다.

AI 기술이 음악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윤리적·법적 논의 없이 구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I가 고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족의 동의 없이 AI로 복원된 음원을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AI 음원 제작 시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명확한 출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통신 3사, 갤럭시 S25 사전 개통... 최다 예약 모델 '울트라'

SKT, 사전 예약 60% 울트라 선택 KT,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 도입 LGU+, 스마트기기 요금제 할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4일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의 사전 개통을 시작했다. 통신 3사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 일반 개통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 3사에 따르면 갤럭시 S25 중 가장 많이 예약된 모델은 '갤럭시 S25 울트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전체 사전 예약 구매자 중 60%가 울트라 모델을 선택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사전 예약 구매자 중 절반 이상이 울트라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색상은 갤럭시 S25와 S25+는 아이스블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그레이 모델 순으로 인기 있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개통을 위해 '삼성 강남'을 방문한 고객들이 2층 픽업존 앞에서 제품 수령을 기다리는 모습. /삼성전자

이에 통신 3사는 갤럭시 S25 사전 구매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먼저 SKT는 S25 시리즈 사전 예약 시 월트디즈니 월드 투어 기회, 스타벅스 5만원 상품권, 디즈니플러스·T우주·T데이·T로밍·에이닷·챗GPT 더블 혜택 등을 제공한다. SKT는 또 제휴

카드 활용 시 더블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 T라이트 카드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을 할부로 결제하면 최대 84만원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 2.0에 가입하고 통신료를 자동 이체하면 최대 72만원 혜택이 제공돼 두 카드를 함께 쓰면 총 15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SKT는 월 5200원을 내면 최대 5회까지 파손을 보상해주는 갤럭시 S25 시리즈 전용 보험상품인 'T케어플러스 파손 S25'를 3개월간 운영한다. 2년 뒤 S25 시리즈를 반납하면 신모델로 기기 변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초이스 혜택인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선택하면 '안심체인지 뉴 갤럭시 AI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클럽은 2년 후 새 휴대 전화를 구매할 때 기존 기기를 반납하면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다. 또 갤럭시 액세서리 디바이스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면 삼성 초이스 요금제 가입 시 버즈3와 버즈3 프로를 혜택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 밖에도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365폰케어 파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세컨드 디바이스(갤럭시 버즈·워치 등)의 파손·피상·해킹 보장은 물론, 폰 교체·파손 수리 대행까지 지원한다. 월정액 5900원이며, 스페셜 이상 요금제 이용 시 램버시 차감 할인으로 월 3800원에 이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최신 갤럭시 단말기를 구매하고 5G 시그니처 또는 5G 프리미엄 플러스(월 10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태블릿 또는 스마트기기 월정액 상품을 할인 제공한다. '갤럭시워치7팩' 또는 '갤럭시버즈3프로팩'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액세서리에 대한 3개월 할부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브로드밴드가 실시간 방송에 인공지능(AI) 기반 UHD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한다. 위 사진은 AI 기반 UHD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한 전·후 비교 사진.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스포츠, 더 선명하게"

실시간 방송에 AI UHD 기술 도입

SK브로드밴드가 실시간 방송에 인공지능(AI) 기반 UHD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IP)TV 업계에서 실시간 방송 화질을 AI 기술로 개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부터 스포츠 채널 SPOTV를 기존 풀HD에서 UHD로 제공한다. UHD는 풀HD 대비 4배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초고화질 디지털 포맷이다.

그동안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는 방송사가 직접 UHD로 송출한 사례가 있었지만, 풀HD로 송출되는 실시간 방송에 AI 업스케일링을 적용해 UHD 화질로 제공하는 것은 IPTV 업계 최초다.

이번 초고화질 개선에는 SK텔레콤의 AI 딥러닝 기반 영상 품질 개선 솔루션인 '슈퍼노바'가 적용됐다. 슈퍼노바는 영상·이미지·음원의 품질을 향상하는 AI 기술로, 고성능 AI 그래픽 처리장치(GPU) 내장 서버를 활용해 색감과 선명도를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혜민 기자

## 쿠팡 등 플랫폼, 실시간 고객 상담 의무화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실시간 고객 상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형식적인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상담 창구만 운영해 실질적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응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구글·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메타 플랫폼스·쿠팡 등 6개사(社)는 온라인과 ARS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해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 내 실시간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를 처리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사유와 일정을 안내해야 한다.

/이혜민 기자